

보도시점 2026. 6. 19.(금) 13:30 (2026. 6. 20.(토) 조간)

“산업전환 최전선의 절실한 이야기를 듣다”

- 고용노동부, 산업전환고용안정전문위원회 개최
- 청년·석탄화력발전·자동차부품 업계를 초청,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에 대한 의견수렴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6월 19일(금) 13:30 산업전환고용안정전문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는 위원 외에 AI 분야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 석탄화력발전 폐지지역 자치단체·자동차 부품업계 등이 참여해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전환의 두 가지 큰 축인 AX·GX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대표적인 세대·지역·업종의 의견을 기본계획에 충실히 담기 위해 이번 위원회를 개최하였다. 다양한 현장 주체의 목소리를 빠짐없이 경청해 기본계획을 마련키로 한 만큼 지난 회의(5.28.(목))보다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되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AX가 입직단계 청년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AI 분야 훈련을 수료하고 취업 준비 중인 청년의 어려움을 집중적으로 들었다. 또한, GX의 대표 업종인 석탄화력발전 폐지지역 자치단체의 산업전환 대응 경험을 나누고, 자동차 부품업계가 필요로 하는 정책에 대한 의견도 수렴하였다.

임영미 고용정책실장은 “노동의 가치가 중심이 되는 산업전환의 핵심은 신뢰 바탕의 대화와 참여에 있다”라며, “거대한 산업전환의 흐름을 거스를 순 없지만 기본계획 수립 전까지 충격이 집중되는 입직단계 청년, 전환업종 거점지역 등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빈틈없이 반영하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노동시장정책관 산업전환일자리지원단	책임자	과 장	어일천 (044-202-7220)
		담당자	사무관	이혜민 (044-202-7222)

□ 회의 개요

- (일시) 6.19.(금) 13:30 ~ 15:30
- (장소) 상연재 서울역점(서울 중구)
- (위원) 총 20명
 - 고용정책실장(위원장), 정부위원(관계부처, 당연직) 5명
 - 노·사 대표 8명, 전문가 등 민간위원 6명
 - * 의결 정족수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위원 외) AI 분야 취업희망 청년, 석탄화력발전 폐지지역 자치단체, 내연차 부품업체 등

□ 논의 안건

-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안) 관련 의견청취

□ 진행 일정(안)

시 간		내 용	비 고
13:30 ~ 13:35	5'	■ 개회 및 인사말씀	위원장
13:35 ~ 13:50	15'	■ 지난 회의(5.28) 결과보고	산업전환일자리 지원단 과장
13:50 ~ 14:10	20'	■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안) 보고	산업전환일자리 지원단 과장
14:10 ~ 15:25	75'	■ 현장의견 청취 및 자유토론	참석자 모두
15:25 ~ 15:30	5'	■ 마무리말씀 및 폐회 선언	위원장